



이누 선영

Facilitator

청소년상담사 3급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철학상담 석사

WORK EXPERIENCE

2017.10 ~ 2017.11

늘푸른중학교 “일상한 나라의 니체씨 별짓하다” 철학상담 집단프로그램 리더

2017.08 ~ 2017.09

중학생 철학상담 집단프로그램 “일상한 나라의 니체씨 별짓하다” 개발

PROGRAM

프로그램 명

내 손으로 만드는 철학책 ‘기차칸에서 만난 철학자와 대화하다’

프로그램 소개

철학자의 텍스트를 해석학적 경험 안에서 만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철학자의 어떤 질문에서 텍스트가 만들어졌으며 철학자의 질문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철학자와 청소년들의 역사적 만남을 주선한다. 매 시간 지정한 철학자의 글을 읽고 각자 삶에서의 질문, 고민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된다. 마지막 주차에는 철학자의 텍스트와 자신의 대답이 함께 쓰인 제본된 책을 완성하여 철학자와 나눈 대화의 기록을 남긴다.

프로그램 결과물

철학자와 나의 이야기가 함께 담긴 나만의 철학책

프로그램 대상

10~20대 초반, 5-12명

프로그램 일정

1주차	왜 기차칸일까?(프로그램 구조화)
2주차	꼰대, 꼬아서 보기(에피테토스)
3주차	영원히 우리를 괴롭힐 쇠파리(소크라테스)
4주차	그는 동굴 밖에서 무엇을 보았는가(플라톤)
5주차	대지진, 내가 선 땅이 무너질 때(키에르케고르)
6주차	우리가 만드는 놀이의 규칙(비트겐슈타인)
7주차	미래의 철학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니체)
8주차	나만의 철학책 완성하고 현사 쓰기